

BIO JOB FAIR에 대한 평가회의시 협회는 다음 번 행사진행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첫회임을 감안하더라도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사 일정 조정(대학일정 고려), 홍보확대, 지속적인 구인구직을 위한 홈페이지(www.biojob.or.kr) 연계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그 외에 전문인력을 찾는 업체와 구직자간의 시각차이, 업계의 침체분위기, 첫 진행으로 인한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등을 좀도 분석하여 2004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Bio Job Fair2004를 준비할 것을 다짐해본다.



참관회사 후기

1 (주)셀트리온 신규입사자의 10%를 확보하는 성과

(주)셀트리온은 2002년 2월 설립된 한미합작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명공학회사이다.

금번 사업확장에 따라 2004년도 회사를 운영할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지난 2003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주관의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그동안 신규직원의 채용을 위해 주요 대학 위주의 채용박람회를 진행해왔는데 마침 회사의 채용일정과 상기 채용박람회 일정이 맞

아 참석하게 되었다.

많은 지원자들이 참석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채용박람회 기간동안 한국바이오벤처협회의 광고와 지원 덕분에 회사에 대한 홍보 및 총 500여명의 인재에 대해 현장 면접 및 서면 면접을 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2004년도 신규입사자의 10%에 해당하는 인재를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회사에서는 내년도 신규인력 채용시에도 한국바이오벤처협회에서 진행하는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였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이 참석하여 이 분야를 전공한 인원들과 상담 및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기존에는 이 분야 전공 인원들이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 이번 채용박람회를 계기로 자신들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이 분야의 회사들에게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2 (주)이매진 특화된 전공자 찾기 어려웠다

이매진은 항암제 및 항생제를 비롯한 세계최초의 신약개발을 위하여 1997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작년에는 카이랄 아지리딘 관련 중간체 대량생산 공정기술을 갖고 있는 (주)켈바이오닉스와 합병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운영비 충당을 위해 고객에 요구하는 맞춤형성도 하고 있다.

이에 신약개발과 맞춤형성을 위한 연구원 충원이 필요한 상

태이다.

당사는 한국바이오벤처협회의 구인 기회 제공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기간동안 당사가 원하는 유기화학 전공 석사는 면접 희망자가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 었다.

생명과학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구직을 위해 당사 팸말이 있는 테이블을 찾았지만 적합한 인재가 찾아오지 않아 큰 성과는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대학의 시험기간인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함께 고려되어 더욱 효과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기업체의 정보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조금 더 자세히 제공되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BIO JOB FAIR